



무등산 서리꽃 '상고대' 만발

19일 무등산 입석대·서석대 기온이 영하 7.8도로 떨어지면서 을 겨울 처음으로 서리꽃인 '상고대'(樹霜)가 만발했다. 나뭇가지에 하얗게 얼어붙은 '상고대'가 청명한 하늘과 대비되며 비경을 이루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고교 선호도 '하늘과 땅'

중3들, 학교 간 최고 22.7배 차이 ... 교육청 뚜렷한 대책 없어 고심

전교조 "서열화 조장 先지망 비율 줄여라"

중3 학생들의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고교 평준화정책이 선(先)지위제를 병행 실시하는 현실에 비추어 선호도가 높은 고교가 우수중학생들을 선점할 가능성이 크지만 교육당국은 뚜렷한 대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표>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선호도가 가장 큰 고교와 작은 학교 간 차이가 22.7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도 대전지역(34배)에 이어 두 번째로 격차가 컸다.

2007학년도 고교 입시에서 중3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은 송덕고로 2.04대 1을 나타냈다. 반면 B고는 0.09대 1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송덕고에는 204명이, B고에는 9명만이 지원한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선호도가 낮은 일부 사립학교들은 우수학생 유치에

간간힘을 쓰고 있다. 장학금의 액수와 수혜자를 늘리는가 하면, 개별 학생에게 연락을 취해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중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설명회를 열거나, 일반계 고교를 피알(PR)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고민이라고 학교 관계자들은 말한다. 한 고교 관계자는 "선지원율이 낮은 것이 최악의 학교는 아니다"며 "지리적 여건 등 여러 고려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선호학교를 줄이는 일이 사·도 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평가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교육청도 고민에 빠져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달 광주 시내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한 뒤 비선호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선지원을 격차 줄여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고교별 선지원율 상위 20개 학교

순위 (2007기준)	학교명	연도별 선지원율		
		2007	2006	2005
1	송덕고	2.04	2.60	1.73
2	서석고	1.80	2.05	1.73
3	살림고	1.68	1.54	1.39
4	정림고	1.62	1.72	1.34
5	국원고	1.61	1.78	1.64
6	대정고	1.54	1.45	1.55
7	민성고	1.50	1.18	1.41
8	동신고	1.45	1.21	1.44
9	운남고	1.43	1.65	1.90
10	고려고	1.34	1.25	1.31
11	진흥고	1.30	0.78	1.23
12	전대사대부고	1.29	0.87	0.88
13	광양고	1.23	1.28	1.88
14	중앙고	1.22	1.24	1.33
15	전일고	1.19	0.84	0.82
16	문성고	1.19	1.27	1.37
17	봉암고	1.17	0.86	1.24
18	현암고	1.13	0.73	0.43
19	금호고	1.10	1.07	1.28
20	동성고	1.10	1.31	1.35

※ 광주시교육청 국감자료

시교육청은 2008학년도 고교 배치에 있어서 1차로 1지망부터 4지망까지 학교를 선택, 거주지 및 출신 중학교와 상관없이 학생 40%를 주첨선 받고, 2차로 나머지 60%는 1~5지

망까지 학교를 선택해 권역별로 지리 정보시스템에 의해 재추첨 배정하기로 했다. 2008학년도 고교에 입학할 광주 시내 중학교 3학년은 현재 2만3천671명이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 "대학입시제에서 학교 내신 점수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으므로 학교 간 서열화·학력격차 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학교 선택권은 의미가 없다"며 "시교육청이 후지망까지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100% 선택권을 허용한 것으로 서열화를 조장하고 평준화 제도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1~5지망까지 학교 선택권을 허용한 후지망 방식을 폐지할 것 ▲선지망 방식을 통한 학생 선발 비율을 40%에서 30%로 축소할 것 ▲장기적으로 고교 재배치 또는 신설을 통해 광주 도심 공간에 균형적으로 고교를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김·대과 값 상승... 현금 전 농어민들

모텔서 수천만원대 도박

진도경찰 10명 검거

김과 대과 가격이 치솟아 수종의 현금이 늘어난 농·어민들이 수천만원대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경찰은 19일 2천500만원대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대과 재배농민 서모(36)씨와 김 양식업자 허모(35)씨 등 진도지역 농·어민 10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1일부터 해남군 문내면 일대 모텔에 투숙한 뒤 4차선에 걸쳐 '바둑이'(카드

4장으로 적은 수를 맞추는 것) 도박을 한 혐의다.

농·어민들이 갑작스레 큰 도박판에 뛰어든 것은 ▲올해 김 품질이 좋아 물김 1자루(60kg)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최고 3만원 비싼 10만원에 거래되고 ▲대과값도 한 단에 1천원이 오른 2천780원으로 치솟자 수매 후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 겨울 선량한 농·어민들을 부추겨 도박판을 개설하는 전문꾼들이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 경찰력을 동원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땅 매입 미끼 역대 가로챈 30대 실형

광주지법, 2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19일 땅 주인들에게 땅을 비싼 값에 매입하겠다고 속인 뒤 감정평가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유모(36)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이모(27)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사기장조 등의 혐의로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집행유예 2~3년과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은 대포 전화와 대포 통장·음성변조기

까지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인천 D건설 직원을 사칭한 유씨 등은 지난 6월11일 영광군 군서면에 2천 평 남짓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Y(55)씨에게 전화해 "입지가 좋은 공장 신축 부지로 사고 싶다. 20억원에 매입할 테니 감정평가 발급비용만 내달라"고 속여 470만원을 받는 등 20여 명에게 29차례에 걸쳐 1억2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들 권력 신탁재 KCC

DS건설(주) KCC전철, 학교, 도로, 아파트

KCC항로, 시스템항로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서울, 강원, 경북, 대전, 전북, 전남, 제주, 광주, 대전, 전북, 전남, 제주

실리온·방수공·철학공·타이브

40대男, 연행 중 경찰은 질러

○광주 북부경찰은 19일 연행 중 인 경찰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른 전(前) 콜박스과 조지원 양모(40)씨를 공무원행방예외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북구 두암동 J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싸우다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왼손 검지와 중지로 북부경찰 소속 손모(53)경사의 오른쪽 눈을 한 차례 찔렀다는 것.

○양씨는 경찰에서 "연행하던 직원이 나만 말고 다른 사람 편드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화가 났었다"고 진술.

○진찰 결과 손경사의 눈 각막에 손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시력은 별 이상이 없다고.

/이중희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 부동산 매매, 임대, 전세, 교환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광고. 주요 서비스 항목:

- 부동산 매매 정보: 송덕고 인근, 송덕고, 송덕고, 송덕고 등 지역별 부동산 매매 정보.
- 부동산 임대 정보: 송덕고 인근, 송덕고, 송덕고, 송덕고 등 지역별 부동산 임대 정보.
- 부동산 전세 정보: 송덕고 인근, 송덕고, 송덕고, 송덕고 등 지역별 부동산 전세 정보.
- 부동산 교환 정보: 송덕고 인근, 송덕고, 송덕고, 송덕고 등 지역별 부동산 교환 정보.

주요 부동산 회사 및 연락처:

- 부동산 정보: 1588-7657
- 부동산 정보: 010-515-7000